

투데이 칼럼

### 이몽룡과 창녕 성씨

**춘** 향전의 이몽룡은 실존 인물이다. 그의 본래 이름은 성이성(成以性, 1595-1664)이며 창녕성씨 후손이다. 그는 청백리로 통한다. 청백리는 조선시대 청렴한 관리에게 내리는 녹이다. 조선 시대를 통틀어 청백리로 선정된 사람은 215명에 불과하다. 경상북도 봉화에는 성이성의 종택이 남아있다. 성이성 이 벼슬을 그만둔 뒤 뒤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살던 작은 집터에 후손이 다시 크게 지은 집이다. 이곳에는 성이성의 유품이 보관되어 있다. 춘향전의 배경이 되는 남원에도 춘향 묘를 비롯해 시내 곳곳에 춘향전과 관련한 기념물들이 있다. 특히 광현루에는 옛날 비석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은 곳이 있다. 남원지역에서 부사를 지낸 이들의 사적비다. 여기에 부사 성안의(成安義)의 비석이 있다. 남원부사 성안의는 바로 성이성의 아버지다. 성안의가 남원지역의 부사를 지낸 것은 선조 40년(1606)부터 광해 3년(1610)까지 5년 동안이다. 그 4년 동안 그의 아들 성이성도 아버지와 함께 남원에서 살았다. 성이성은 13세부터 17세까지 아버지와 함께 이곳 남원에 머물다가 떠난 것이다. 성이성은 22세 되던 해에 과거의 예비시험인 생원시에 합격한다. 그



정복규  
논설위원 · 통일교육원

리고 33세에 과거에 급제한다. 과거에 합격한 후 사헌부, 홍문관 등으로 삼사의 요직을 거친다. 그러나 강직하고 직언을 잘해 벼슬같이 순조롭지 못했다. 낙향을 했다가 임금의 부르짖음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 벼슬을 하기도 했다. 성이성은 끝은 성품 때문에 네 차례나 안행사를 한다. 그의 안행이사 과정 기록은 인조실록과 그가 쓴 안행일지에도 나타난다. 인조 때 그는 안행 체비를 갖추고 호남으로 향한다. 여산, 정음, 고창 등을 거쳐 하루에 백리 정도씩을 가면서 고을 수령의 행정을 탐문했다. 그러나 성이성의 호남 안행일지에는 남원에서 출두했다는 기록이 없다. 성이성은 안행을 다니다가 순천에서 부득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이후에는 한양으로 돌아온다. 그 무렵 두 번째로 남원에 들렀다고 적

고 있다. 성이성의 행적과 관련된 또 다른 내용은 창녕성씨 후손이 주로 삼사의 요직을 거친다는 책에 자세하게 나온다. 춘향전에 없는 내용까지 실려 있다. 성이성 이 바로 이몽룡의 모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춘향전에 당연히 성몽룡 이어야 하는데 왜 이몽룡이 됐을까. 춘향전에서는 성씨 성을 몽룡이 아니라 춘향에게 붙여주었다. 성몽룡이 아니라 성춘향이라는 것이다. 춘향은 어떤 인물인가. 실제 남원 지역에는 춘향이라는 이름을 소재로 한 설화들이 많다. 그러나 행복한 결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없다. 결국 춘향이 자결을 한 것으로 나온다. 그 후 큰 재앙이 있었으며 이를 두고 남원 사람들은 춘향의 한(恨) 때문이라고 한다.

천민의 신분이었다면 만큼 춘향의 이야기가 기록으로 전하는 것은 없다. 다만 춘향전에만 전해 올 뿐이다. 남원에는 전통적으로 억울하게 죽은 춘향 이야기가 전해온다. 춘향이 이 도령을 위해 수절했다는 이야기가 분명한 근원이 되는 셈이다. 창녕성씨 문중에서는 대대로 이몽룡의 모델이 성이성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왔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성이성을 모델로 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창녕성씨 문중에서는 기생과의 사랑 놀음에 양관 자제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 것이 사실이다. 성도령 이 이도령 이 된 까닭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편 성이성은 안행여사를 끝낸 직후 남원을 찾는다. 그 때 나이 53세였다. 그는 왜 광현루를 찾았으며 누구를 만났을까. 성이성은 이곳에서 늙은 기생 한 사람을 만나 함께 얘기를 나눈다. 그 기생은 과거에 자신이 춘향과 사랑했던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다. 과거의 자신의 이야기는 물론 특히 자기가 떠난 다음의 일이 궁금했을 것이다. 성이성은 그때의 일을 일기하듯 이렇게 적고 있다. “사소년사 아심불능매(思少年事 夜深不寐寐, 소년 시절의 일을 생각하느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독자제언

‘귀한 자식 때 한대 더 때린다’는 속담은 신앙처럼 대물림하여, 불과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학교와 가정 내에서 체벌은 관대했다. 그러나 최근 ‘정신인사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 범죄가 연일 언론보도되면서,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되어,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마련하여 작년 10월 국회에 제출하여, 올해 1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아동의 보호, 교양을 위한 징계권, 일명 ‘사랑의 매’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본인인 아동학대전문상담관(APO)으

#### ‘사랑의 매’를 외치던 시대는 끝났다

로서 다양한 가정들과 면담하면서, 아동에 대한 징계권 폐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았으며, 아동학대의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상당수였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진다.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뜻하는 ‘신체 학대’,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칭하는 ‘정서학대’, 그리고 성적 폭력 또는 성적 가혹행위를 뜻하는 ‘성학대’, 마지막으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거나 유기하는 ‘방임’이 있다. 4개의 학대 유형 중 ‘신체 학대’나 ‘성 학대’의 경우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으나 ‘정서학대’나 ‘방임’의 개념은 쉽게 외왕지 않을 것이다. ‘정서학대’에는 아동에게 소리치거나, 무시 또는 모욕 등의 언어 폭력행위,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강요하는 행위, 그리고 부부싸움이나 가정폭력에 노출 시키는 행위 등이 있고, ‘방임’의 경우는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 및 청결 관리 등에 소홀한 ‘물리적 방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교육을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의 교육적 욕구 및 의무에 대한 방치행위에 해당하는 ‘교육적 방임’, 그리고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 마지막으로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시설에 위탁, 친족 거주지 근처에 무작정 아동을 두고 사라지는 등의 ‘유기’가 있다. 이처럼 학대의 개념은 생각보다 훨씬 거시적이며,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것들이, 사실은 아동학대의 범주에 속해 있는 것이 많다. 아동학대의 ‘사후대처’와 ‘재발 방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무엇보다 부모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 이해와 체벌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사랑의 매’라 불러 왔던, 훈육을 빙자한 폭력의 합리화의 질긴 명맥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권광호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순경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 사설

#### 미국과 중국의 신 냉전 시대

미·중 신(新) 냉전은 이미 시작됐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미·중 간 반도체 갈등은 한국엔 제1의 대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우선은 미·중 간 군사 충돌이다. 남중국해 또는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우발적 군사 충돌로 번질 수 있다. 미국으로선 계속 중국 책임론을 내세우며 대중 무역을 줄이고, 최악은 무역 시위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이미 중국이 싫어하는 두 가지 이슈인 홍콩과 대만을 적극 활용 중이다. 중국도 수출입 등 여러 보복 카드가 있다. 심각한 건 환율 조작을 통한 보복이다. 이는 미 증시까지 흔들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신 냉전의 주요 무대는 경제다. 미국은 안보, 중국은 경제라면서 설부터 한 쪽을 택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

는 불가능하다. 이는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실력이 있을 때야 가능하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사드) 체계 논란 때 이미 경험을 했다. 외교부는 최근 미국과 중국 근무 경험자를 교차 배치하는 등 양국을 모두 아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은 중국, 대기업은 미국과 관계 강화가 필요하다. 친미나 친중이냐를 넘어, 때론 친중, 때론 친미, 때론 친일 정책까지도 동시에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코로나19의 성공 방편으로 국가 위상이 높아진 지금이 좋은 기회다. 10~20년 앞을 내다보고 잘 계산해야 한다. 만약 중국을 택한다면 미국, 그리고 기타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과는 헤징(hedging, 위험 분산)을 해야 한다. 확실한 것은 미·중 관계가 나빠질 뿐, 좋아질 일은 없다는 것이다. 신 냉전 구도에서 교배 등엔 긴 사유 신세가 우려된다

#### 심각한 고농도 미세먼지

갈수록 유해 물질이 포함된 고농도 미세먼지가 극심하다. 전북 지역도 걸핏하면 초미세 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로 가득 차다. 전주의 도심 상공은 미세먼지가 뒤덮이면서 아파트와 빌딩 등은 형태만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다. 전년을 접는 시민은 눈에 띄게 줄었고, 마스크 착용은 일상이 됐다. 호흡하기에 부담스럽다. 먼지가 많다 보니가 활동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 평소엔 운동하고 싶었는데도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 중국발 스모그 등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여기에 대기오염이 더해져 있다. 대기질 악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해마다 겨울철에는 북서풍 영향으로 국외의 미세먼지가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대기 환경이 계속 나빠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이다.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하게 되면 만성 기관

지염과 심혈관 질환 등이 생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노약자와 어린이는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뒤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나서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하기도 한다. 일장 규모 이상의 공공 소각시설, 건설 사업장 등의 운영 시간을 단축했다. 또한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를 대상으로 진공흡입 차량과 살수차 운영을 확대했다. 자동차 배출 가스 점검과 함께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전파하고 있다. 노후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가동률을 최대 80% 이내로 제한토록 한 곳도 있다. 이행점검 빈을 편성해 비상저감 조치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단체 문자 발송(SMS)과 긴급 재난문자(CBS)를 통해 상황을 전달한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비상 저감 대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노력중심 · 지역중심

# 전주매일